

알림

성공투자전략 무료 강좌

6월7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일보사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미래 자산설계 및 성공 투자전략'이란 주제로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좌는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강창희 소장, 한국밸류자산운용 이채원 전무가 강사로 나섭니다.
관심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6월 7일(수) 오후 3~6시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문의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사무국 (02-2003-9235~6, www.kcie.or.kr)

光州日報社·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3·30부동산 대책 두달

재건축 아파트 하락세...하반기에 안정세

정부가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3·30대책이 2개월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약효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30대책에 따른 재건축 개발부담금의 영향권에 포함된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의 매매가가 보합세를 이어가는 등 전국적 재건축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30대책의 주요 타깃인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효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값이 크게 높아졌으나 개발부담금으로 인해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3·30 직접적 영향권인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지난주 주간 상승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아파트값이 0.01%하락했으며, 부동산서비스의 조사에서도 0.15% 하락했다. 이들 정보업체의 조사에서 서울 재건축아파트값이 주간단위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월 중순 이후 3개월여만이다.

부동산114의 조사에서는 지난주 0.16% 하락해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7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3·30대책이 나온 직후보다 날이 갈수록 약효가 더 세지고 있는 것이다.

◇한약학 하반기에도 이어질까= 시장 전문가들은 3·30대책의 약효

정부 규제·잇단 버블경고에 매수세 약화

8월 판교 중대형 평형 분양이 변수 될 듯

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9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비롯, 3·30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데다 지난해 8·31대책 때 마련됐던 다양한 제도도 하반기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REPM버스 고종완 대표는 "재건축아파트값이 이미 하락세로 돌아서고 6억원초과 아파트의 매수세가 약화된 것을 보면 3·30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8·31대책까지 맞물려 더 강력한 것으로 다가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6월부터 실거래가를 등기

부에 기재해야 하는 데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받게 된다"면서 "또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도 올해 말로 끝나고 양도세율도 최고 50%로 높아지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합영진 팀장도 "정부의 잇단 경고로 인해 매수세가 꺾이면서 일단 시장은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우위로 전환됐다"면서 "이런 양상이 가을까지는 이어질 것이며 연말로 갈수록 더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중대형 평형 분양이 변수= 그러나 8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이 시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월 중소형 평형 분양이 주변의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양상이 8월에도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아파트값 안정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매수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계기만 생기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예정돼 있는 일정중 가장 큰 변수는 판교가 될 것이다"면서 "판교 분양가가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 등에 따라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집값 거품 전국 현상 아니다”

하반기에 경기 급격 위축될 가능성 낮아

조원동 재경부 정책국장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30일 “집값 거품은 전국적 현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명통입니다’에 출연, “강남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너무 빨리 뛰어서 거품이 있지만 (집값 거품이) 전국적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공공요금 연세 인상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 같다”며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일시에 집중되면 서민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상 시기 분산을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반기 경기동향과 관련 “일각에서 4분기 성장률을 3%대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려면 이미 경기하강 조짐이 나타나야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다”며 “하반기에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100억달러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품수지는 250억달러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세금인상 조세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

전주성 한국재정학회장 지적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30일 복지국가가 필요하지만 그 재원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아직도 만연한 우리 상황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과세기반이 협소하고 조세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출구조의 비효율로 인

해 세금 한 단위당 정부서비스의 질이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재정 규모를 좀더 늘릴 유인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에 맞춘 편익보다 비용만 초래할 위험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우리 나라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나 조세개혁에 관한 논의는 좀더 이론적 배경, 제도적 환경, 역사적 경험을 충실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동서고금을 통해 불명예스럽게 퇴출된 왕이나 권력을 보면 잘 못된 조세정책이 화근이 된 예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세금에 대한 유혹을 버리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이렇게 만들어요”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기업사령협의회는 30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기아차 사주기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 등 200여명은 스포티지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뉴카렌스 홍보비디오를 시청했다.

1,000억대 ‘부품소재 전문펀드’ 조성

세계적 부품소재 기업 육성...인수·합병 절차 간소화도

정부는 세계적인 부품·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부품·소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부품·소재발달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 1억달러, 매출 2천억원을 넘는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을 위해 M&A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M&A 활성화 여건의 조성에 나서 시장 자율적으로

기업규모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부품·소재기업에 집중투자하는 모태펀드인 ‘부품소재 전문펀드’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부품·소재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중 중소기업 연계형 공동기술개발과제 비율을 현재 53%에서 2010년에 7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디지털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전통산업과 나노, 바이오 등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출되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융합 신산업 분

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융합 부품·소재 발전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자동차와 IT 등 전통산업의 융합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융합 가전, U-헬스케어 등 5개 전략분야를 선정해 핵심 부품·소재의 개발을 추진하고 정보통신부는 오감통신 도우미(UTC)와 건강·환경도우미(PLC) 서비스 등의 구현을 위한 전략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회의에서 50대 소재 원천기술과 50대 모듈부품 기술 확보 전략을 적극 추진해 2010년에 부품·소재 수출 2천5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5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연합뉴스

미수거래 자율규제 회피?

증권사 초단기 대출 버젓이 영업 ‘눈총’

증권업계가 미수거래 자율규제에 나선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초단기 대출서비스를 도입, 고객들의 미수거래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어 반쪽을 사고 있다. 심지어 새로운 유형의 초단기 주식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해 업계의 자율규제안에서 금하고 있는 ‘무현금 미수거래’를 부활시킨 증권사도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무현금 미수거래도 부활

수수료 수입 감소분 만회

고객들 피해 여전할 듯

◇초단기 대출로 미수거래 기간 늘려 =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신한증권과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가 1~5일인 온라인 초단기대출을 통해 고객들의 미수거래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국토교통신한증권은 이날 22일 부터 미수거래 고객에 한해 연간 이자율 8.9%로 최장 5거래일까지 단기자금대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같은 날 메리츠증권도 미수거래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연 9%의 이자율로 반대매매 회피용 초단기 대출자금을 최장 3거래일까지

지 대출해주기 시작했다. ◇미수금 감소는 초단기대출 때문= 증권사 고객의 자신의 보유현금과 대응증권(주식) 이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미수거래’라고 부르며 이를 뒤인 결제일까지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증권업협회에서 산정하는 미수금으로 잡혀 된다. 하지만 고객이 결제일에 증권사의 초단기대출 상품을 이용해 매입대금을 결제할 경우 협회 산정 미수금으로 잡히지 않는다. 아울러 초단기대출 이용 고객은 눈앞의 반대매매를 피할 수는 있지만 1~5일에 불과한 대출기간이 지나면 증권사들이 반대매매에 나서기 때문에 미수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며 투자 위험은 오히려 커진다.

◇무현금 미수거래도 부활 = 게다가 최근 미수거래 자율규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흐드는 무현금 주식거래 서비스까지 부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26일부터 ‘미수론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보유 주식 대응가(전날 종가의 70%)의 최대 3.3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게 했다.

증권사들은 미수거래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미수거래 자율규제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수입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파고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정말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대상선 유상증자 참여 여부

현대중공업측 내달 14일께 결정

현대그룹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내달 9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현대상선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유상증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내달 9일 확정되는 현대상선 유상증자 2차 발행가액을 지켜본 뒤 이사회를 열어 14일까지 3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1만4천원에 결정됐으며 2차 발행가액 또한 최근 주가가 출렁이고 있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이사회에서 주주 이익 극대화 차원에 입각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우리사주 청약에 마친 현대상선은 내달 9일 유상증자 2차 발행가액을 정하며, 2차 발행가액이 1차 발행가액인 1만4천원보다 높을 경우 최종 발행가액은 최저인 1만4천

원으로 확정돼 내달 14~15일 구조조정 청약을 받게 된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상선의 1차 유상증자 발행가액 1만4천원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해왔기 때문에 더 낮아질 경우 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상선은 최근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2차 발행가액이 최소 1만4천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최종 발행가액이 1만4천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내달 유상증자 구조조정 청약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19일 폐쇄한 주주명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대중공업측의 우호지분이 숨어있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현대상선 지분을 매입했을 뿐 우호세력을 통한 추가 매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연합뉴스

한국, 100대 수출품목 해외시장 경쟁

韓-中 29개·韓-日 45개 품목 ‘경합’

한국의 100대 수출 품목은 해외시장에서 중국보다 일본 제품과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의 100대 수출 품목 가운데 한-일간 경합품목은 45개인 반면 한-중국간 경합품목은 29개인 것으로 나타나 한-중보다 한-일간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 중, 일 100대 수출 품목 중 3개

국의 경쟁이 증폭되는 품목은 송수신 기기, 섬유·의류, 화장품 및 여객선 등 1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도체, TV부품, 컴퓨터 부품 등 3개 품목은 한, 중, 일 3국의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가장 수출경합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이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10대 품목은 이 3개 품목 외 송수신 기기, 섬유·의류, 화장품 및 여객선, 컴퓨터 입출력 장치, 자동차 부품 등이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Position, Job Descrip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companies like 한국씨티은행, 오스템, GM대우자동차판매, etc.

<광주지프코리아 512-6210 제공>